구민이 바라는 서초, 함께 만드는 의회를 그리며
제9대 후반기도 힘차게!

제9대 후반기 서초구의회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고선재 의장은 취임사에서 "의회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가 높아진만큼, 그 어느때보다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의원들은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 민원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물밑에서 이어왔다. 아울러 주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검토 작업에 한창이다. 이처럼 예열을 마친 의회는 오는 3일, 제33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호에서는 의회가 걸어갈 앞으로의 일정을 미리 살펴본다.

의회의 의사봉은 9월부터 12월까지 쉴 틈 없이 두드려질 예정이다. 먼저 3일부터 9일 까지 열리는 임시회에는 33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10월에 한 차례 임시회를 더 연 의회는 11월부터 12월 약 한 달에 걸쳐 제2차 정례회도 개최한다.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024년에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이어 나간다. 특히 이번 연구단체는 활동 기간을 늘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또 기존 두 그룹에서 세 그룹으로 확대해 복지, 문화, 첨단산업 등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달 중으로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현장방문, 워크숍, 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12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구민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간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의연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또 관내 학생들을 의회로 초대해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열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연말에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의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온정을 나눈다.

24년 하반기 의회 일정 계획(안)

2024 09
- 제335회 임시회
-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의연품 전달
- 의원연구단체 활동 시작

2024 10
-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 제336회 임시회

2024 11
- 제337회 제2차 정례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구정질문

2024 12
-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연말맞이 의원자원봉사활동
-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승인

※ 상기 일정은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반기 슬로건
"구민이 바라는 서초, 함께 만드는 의회"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구민이 바라는 서초'에는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초의 모습을 먼저 듣고 공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바라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초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비로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만드는 의회'에는 16명의 의원이 하나가 되어, 집행기관과 '함께' 그리고 구민 모두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반영했습니다.

'2024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의회는 8월 20일, 전시 상황 등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4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보고받고 상황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고선재 의장, 이현숙 부의장, 유지웅 운영위원장, 하서영 의원은 구청 2층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을지연습 2일차 상황보고를 받았다. 고선재 의장은 "을지훈련은 실제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의 안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